



제4장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와  
 의병 활동의  
 실제

구완회(세명대)



**N**  
 留陣則在方孝園後便為之必以內外層  
 為之親兵守柵汝  
 豫選一善勇力者自為一軍為奇兵

**M**  
 入其前聽令則左右擺列中營列之  
 于營前前左右後各東西相向而立  
 亦其前哨盡起汝左哨亦或旗從在隊  
 之後哨去左哨之中大於之中營卒

將大中  
 後

**J**  
 司哨則或左右司哨去左右三司哨皆司

後輕  
 以需  
 上隊  
 二旗



#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와 의병 활동의 실제

구완희(세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I. 머리말
II. 전통 병학의 맥락에서 본 속오작대도 해설 (『병학지남』과의 비교)
III. 의병 전쟁의 실제와 「속오작대도」의 비교
1. 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2. 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IV. 의병 전쟁과 「속오작대도」의 의미

## I. 머리말

한말의 여러 의병장 중에서 이강년李康季, 1858~1908만큼 자료가 풍성한 경우는 드물다.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일기를 남겼고,<sup>1)</sup> 그에게는 문헌을 다룰 줄 아는 동지들이 있었다. 그의 활동은 『창의사실기 倡義事實記』로 정리되었고, 그의 활동상은 날짜별로 파악하는 것이 거의 가능할 만큼 자세히 알려져 있다.<sup>2)</sup> 자료들도 제법 검토된 편이다.<sup>3)</sup>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는 전선을 달렸던 이들이라기보다, 그들을 지원했던 선비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선비들은 군대의 일에 대하여 대체로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의병의 대의나 명분 등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이들이었다. 따라서 의병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미약한 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강년이 남긴 「속오작대도 束伍作隊圖」는 흥미로운 자료다. 거기에는 구체

---

1) 『창의사실기』에서는 ‘공의 일기를 보라’[見公日記]라고 근거를 밝힌 부분이 많다.  
 2) 『창의사실기』는 국역이 이뤄졌고, 전기도 나왔다. 구완희, 『국역창의사실기』(다운샘, 2014);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지식산업사, 2015) 등.  
 3) 구완희, 「이강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천의병의 종합적 이해』, 1996.

적인 병사들의 조직과 명령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의병 항쟁기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sup>4)</sup> 의병 지도자가 남긴 유품인 ‘속오작대도’는 대체로 의병 조직, 운용에 관한 자료로 여겨졌다. 나아가 이강년이 창안한 병법으로 여겨지고, 실제 의병 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여겨졌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이를 중시한 운강이강년기념관에서도 마찬가지다.<sup>5)</sup> 근년에는 방송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를 주목했고,<sup>6)</sup> 이강년의 고향인 문경에서는 이를 토대로 의병행렬을 재현하기도 했다.<sup>7)</sup> 그리하여 재래식 무기인 창검을 중심으로 무장한 농민 출신의 의병 모습을 상상하게까지 했다.

그러나 ‘병법’이란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축적된 지혜의 산물이다. 크고 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해 온 역사적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이강년의 속오작대도에 나타난 여러 측면을 전통 속에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노력이 이뤄진 적이 없다. 물론 의병 전쟁의 현장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었는가에 관련한 검토도 행해진 적이 없다.

이 글에서는 이강년의 속오작대도가 전통의 병법, 또는 병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의 병서를 집대성한, 속종 때쯤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병학지남(兵學指南)』과 비교하려고 한다.<sup>8)</sup> 비교를 통해 속오작대도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를 짐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원리가 의병부대의 편성 및 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점검하려 한다.

4)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집문당, 1997), 367쪽 각주 116번.

5) 이 자료에 대하여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는 ‘이강년이 일본과의 의병 전투를 전개했을 당시 의병부대의 진법(陳法) 전개 및 작전에 활용한 도해도’라고 소개했다.

6) KBS 다큐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2016.8.15.)에서는 속오작대도를 의병부대편성표, 나아가 지금의 분대·소대·중대·대대 등으로 이뤄진 군사 편성 조직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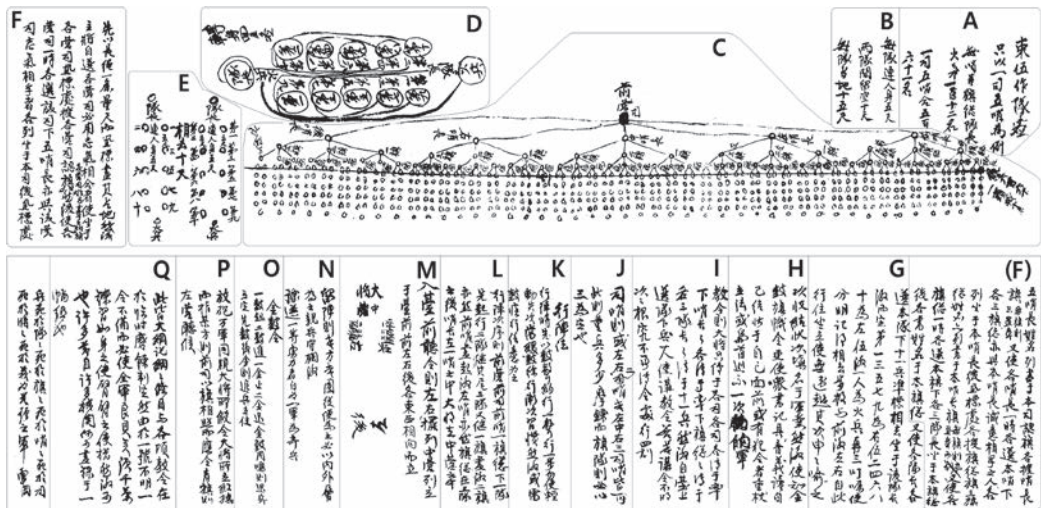
7) 제66회 문경시민체육대회(2017.10.12.)에서 ‘속오작대도 재현 행사’를 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백두현, 『『병학지남』 이관본의 연대 고증과 계통 연구』, 『국어사연구』 20, 2015.

서술의 편의상 속오작대도를 우리 말로 다시 옮기고,<sup>9)</sup>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한 뒤에 의병 활동의 양상과 비교하려고 한다.

## II. 전통 병학의 맥락에서 본 속오작대도 해설 (『병학지남』과의 비교)

속오작대도는 부대의 편성과 대형隊形을 표현한 그림 부분과 행군과 부대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군호軍號를 설명한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을 17개A~Q 단락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번역과 설명을 덧붙이도록 한다.



〈그림 1〉 속오작대도

9) ‘속오작대도’는 문경문화원의 의뢰로 처음 번역되었다(오현진 역). 이번에 빠뜨리거나 잘못된 부분을 역사적 맥락에 맞도록 바로잡아 다시 번역했다.

## 〈A〉

束伍作隊圖

只以一司五哨爲例

每哨員旗總隊長

火兵一百十二名

一司五哨合五百六十一名

## 국역

속오작대도: 단지 1사司가 5초哨인 경우를 예로 든 것임.

각 초의 인원 수는 기총旗總·대장隊長·화병火兵까지 112명이고, 1사는 5초이며 561명이다.

## 해설

여기서 설명하는 편제는 1사의 병력이 5초일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1사의 규모는 5초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이하 속오작대도가 제시하는 편제에 관한 것들은 모두 임진왜란 중에 조선이 받아들인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랐다.

기효신서에서 구사된 병법은 명나라 남쪽 해안가에 출몰하는 왜구를 토벌하기 위하여 군사 일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을 조직한 데서 출발했다. 이를 남병南兵의 전술을 집대성이니,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완성판이니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군은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에서 위력을 보여준 명나라 남병의 전술을 담은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받아들여 기병 중심의 전술을 버리고 보병 중심의 전술을 택했다. 『기효신서』는 비전문적 군인인 농민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한 원앙진鴛鴦陣 형태의 대隊를 기초로 했는데, 이는 10명의 전투원과 이들을 이끄는 대장, 그리고 화병 1명으로 구성했다.

1사의 병력이 561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B> 부분에 나타난 편제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기효신서』에서는 화병 1명과 전투원 10명, 대장 1명으로 이뤄지는 대隊를 전투의 기초 단위로 삼고, 3대를 1기旗로, 3기를 1초로, 5초를 1사로 5사司를 1군영으로 조

직하도록 했다.<sup>10)</sup> 따라서 1대는 대장을 포함하여 12명, 3개의 대가 합친 기<sub>旗</sub>는 36명 $12 \times 3$ 에 기총 1명을 포함하여 37명으로 구성된다. 3기가 모여 초를 이루므로 초는 111명에 초장<sub>哨長</sub>까지 합치면 112명이 된다. 5초는 560명 $112 \times 5$ 에 지휘관 1명을 합쳐 561명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방식의 보병 편제는 곧 임란 중에 수용되었다. 전쟁 때 도체찰사<sub>都體察使</sub>, 또는 경기·황해·평안·함경도 등 4도체찰사<sub>四道體察使</sub>로 임명되어 국난 극복의 선두에 섰던 유성룡<sub>柳成龍</sub>은 일찍부터 이를 주목하여 제안했고,<sup>11)</sup> 1596년 1월에는 『기효신서』에 따라 화병을 포함한 11명으로 1대를, 3대를 1기로, 3기를 1초로, 5초를 1사로, 5사를 1군영으로 조직하는 조치가 있었다.<sup>12)</sup>

이후 『기효신서』에 나타난 속오의 원리는 『병학지남』 등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병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비들까지 포함한 조선의 일반 농민들은 원칙적으로는 예외 없이 중앙·지방군에 소속되고, 속오의 원리로 묶여 있었다. 따라서 속오의 원리는 상식에 가까웠다.

예컨대, 홍대용<sub>1731~1883</sub>의 『담헌서』에는 곱셈을 가르치는 항목에서 속오의 제도와 관련한 예제를 제시했다. 즉, ‘속오 75명 4사 3초 2기 1대가 있는데, 군인 한 명에 화약 6근 6냥 7전 4푼씩을 지급한다고 하면 화약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의 아래에는 ‘1대의 총쏘는 병사는 10명이고, 3대가 1기가 되고, 3기가 1초가 되고 5초가 1사, 5사가 1영이다.’라고 부연되어 있다.<sup>13)</sup> 화병은 화약을 나눠주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도 알 수 있다.

결국, 속오의 편성 원리는 조선 후기를 통하여 일반적인 상식에 가까웠다. 이강년은 무과를 거친 전통적 군인이었고, 그에게는 반드시 익혀야 할 지식이었다. 그가 『속오작대도』에서 남긴 속오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는 조선군이 익혔던 기본적 부대 편성을 말한다.

10) 『기효신서』 권1, 속오.

11) 『서애선생연보』 권2, 만력 22년(1594) 겨울.

12) 『서애선생연보』 권2, 만력 24년(1596) 1월.

13) 『담헌서(외집)』 권4, 주해수용 내편 상, 乘法.

## 〈B〉

每隊連人身五尺

兩隊間留空十尺

每隊占地十五尺

## 국역

각대의 병사는 5척 간격으로 늘어선다.

두 대 사이의 공간은 10척씩 남겨둔다.

각대는 15척의 땅을 차지한다.

## 해설

여기서는 부대가 도열했을 때의 모습을 설명했다. 병사들이 5척 간격으로 늘어서고, 각대 사이를 10척씩 띄우게 되면 결국 각대는 15척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 부분은 병서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다. 『병학지남』에서는 원양진을 칠 때 진과 진 사이를 1장<sub>丈</sub>씩 띄우라고 했다. 원양진은 대<sub>隊</sub>를 뜻하므로 대 사이의 공간을 10척씩 띄우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병사 개개인의 거리를 5척으로 유지하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조선 건국 초에 군권을 장악하였던 정도전<sub>鄭道傳</sub>이 남긴 진법에는 병사 간의 거리를 3보로 정했다.<sup>14)</sup> 이는 속오작대도에 나오는 15척과 대체로 근사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양팔 간격으로 벌려서’는 체조 대형에 가까웠을 것으로 본다.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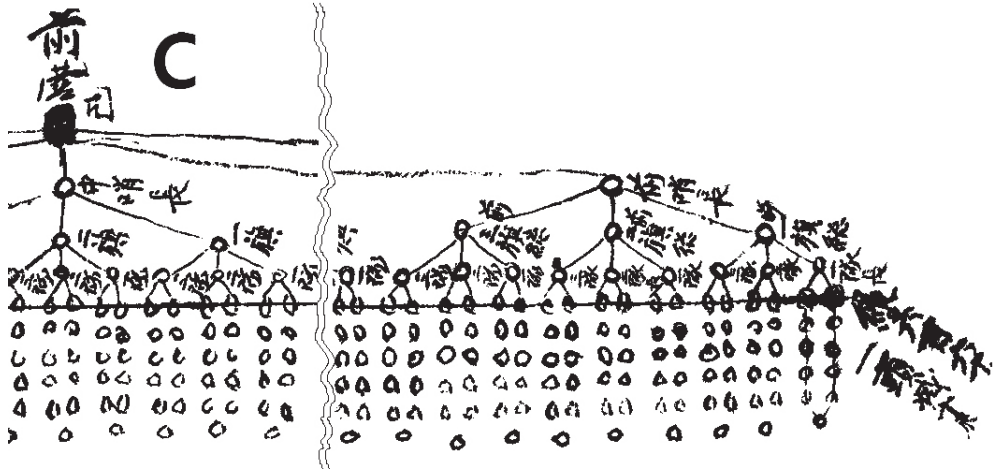
### 그림 설명

그림은 12명으로 이뤄지는 대, 3대로 이뤄지는 기, 3기로 이뤄지는 초, 5초로 이뤄지는 사(司)를 그림으로 표시하고, 대를 이끄는 대장, 기를 이끄는 기총, 초를 이끄는 초장을 일일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표시했다. 대는 1대, 2대, 3대로 구분하고, 기는 1기, 2기, 3기로 나누며, 초는 전초, 좌초, 중초, 우초, 후초로 이름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5초를 이끄는

---

14) 『삼봉집』 권7, 진법, 결진십오도.

사의 지휘관은 표시하지 않았다. '사' 위에 '전영'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사 단위를 하나의 군영으로 본 것이다.



원래는 전사·좌사·중사·우사·후사가 있고, 이를 지휘하는 영 단위도 전·좌·중·우·후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인 편제이다. 조선시대에 사司 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중 4품 무관직인 좌총把總이라고 일컬었고, 영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정3품 당상관인 영장營將이었다. 좌총이나 영장은 수령이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의 맨 오른쪽 끝에 적은 글자는 불명확한데, 일단 ‘總六百六十一頭成十...’처럼 보인다. 여기서 ‘총 661명’이라는 말이 의문인데, 1사의 병력은 위에서 보았듯이 총 561명이다. 따라서 ‘661’이란 숫자는 착오가 아닌가 한다.

## <D>

### 그림 설명

‘轉身回立圖전신회립도’라고 이름 붙은 도표이다. 병력을 움직이다 보면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한 대가 병력을 뒤로 돌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를 그림으로 표시했다. 좌·우오의 앞에서 대를 이끌던 대장이 부대의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꿀 때 대장은 몸을 돌려 앞쪽으로 달려 나가고, 10명의 전투원은 자기 오를 유지하면서 대장 뒤에 1·2·5·7·9와 2·4·6·8·10의 순서로 서게 된다. 대장이나 대원의 시각에서 볼 때 좌·우오의 구성원만 바뀌는 것이다. 이때 5·6의 병사는 몸만 돌리면 되고, 화병



은 다시 대열 끝으로 가서 자리 잡아, 결국 처음에 취했던 대열의 대칭 상태로 위치를 고수한다는 뜻이다. 이는 오伍를 단위로 엄격한 연좌제를 끌어들이던 절강병법의 원앙진에서도 강조했던 방식이다. (뒤에 언급) 같은 그림인 ‘일대전신향후도一隊轉身向後圖’는 『병학지남』에도 나타난다.<sup>15)</sup>



<그림 3> 전신회림도(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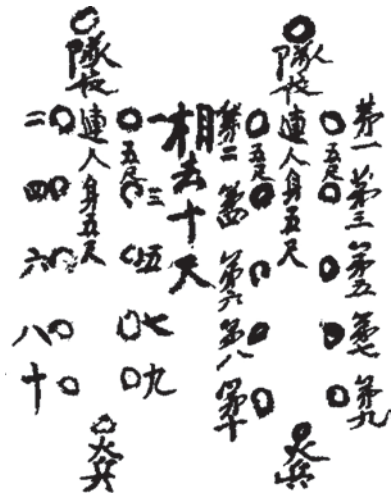


<그림 4> 일대전신향후도

## <E>

### 그림 설명

B와 D를 보완하는 설명이다. 대장이 맨 앞에 서고 뒤에 제1, 제3, 제5, 제7, 제9의 병사가 5척의 거리를 두고 서고, 제2, 제4, 제6, 제8, 제10의 병사가 역시 5척의 거리를 두며 좌·우오의 사이도 마찬가지로 띄웠다. 두 대의 간격은 10척씩 띄운다는 것도 그림으로 표시했다. 화병은 맨 뒤에 위치시켰다.



<그림 5> 대(隊)의 도열(E)

15) 『병학지남』 권3, 영진총도 상, 일대전신향후도.

## 〈F〉

先以長繩一條 量尺而置標 畫其占地 然後主將自選各營司 必用志氣相合者 使坐于各營司置標處 授各營司認旗 各營司姓名書于主將旗 然後使各營司 一時各選該司下五哨長 亦與該營司志氣相孚者 各列坐于本司後置標處 五哨長姓名 列書于本司認旗 各授哨長旗(無旗則只置章)

又使各哨長 一時各選本哨下三旗總 亦與本哨長誠意相孚之人 各列坐于本哨長後置標處 各授旗總旗 三旗總姓名 亦列書于本哨長旗(無旗則亦置章而別)

又使各旗總 一時各選本旗下各三隊長 坐于本旗總後 各書姓名于本旗總

## 번역

먼저 긴 새끼줄 한 가닥으로 측량을 하여 땅바닥에 표시를 하고, 군대가 차지할 자리를 그린다. 그런 뒤에 주장主將은 각 영사營司를 뽑는데 반드시 뜻이 서로 맞는 사람으로 한다. 각 영사를 표시한 곳에 자리 잡도록 하며, 각각의 영사에게 인기認旗를 주고, 각 영사의 성명을 주장主將의 깃발에다 쓴다.

그런 뒤에 각 영사가 동시에 각각의 사司 아래에 있는 다섯 초장哨長을 뽑도록 한다. 초장 역시 영사와 뜻이 서로 맞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각기 본사本司에 뒤에 표시한 곳에 벌려 자리 잡도록 한다. 다섯 초장의 성명을 본사의 인기에 줄지어 적고 각자에게 초장기哨長를 준다. 깃발이 없는 경우 표지[章]를 마련하여 대신한다.

또 각 초장들로 하여금 동시에 초장 수하의 세 명의 기총旗總을 뽑도록 하는데, 역시 본초장과 뜻이 서로 맞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도록 하고, 각기 본초장 뒤에 표시한 곳에 자리하게 하며 각 기총에게 기총기旗總旗를 준다. 세 기총의 성명 또한 본초장 깃발에 나열하여 쓴다. 깃발이 없는 경우 역시 표지[章]를 마련하여 구별한다. 또 각 기총으로 하여금 동시에 본기 수하의 세 명의 대장隊長을 선발하여 본기총 뒤에 자리하게 하고, 각각의 성명을 본기총의 깃발에 적는다.

##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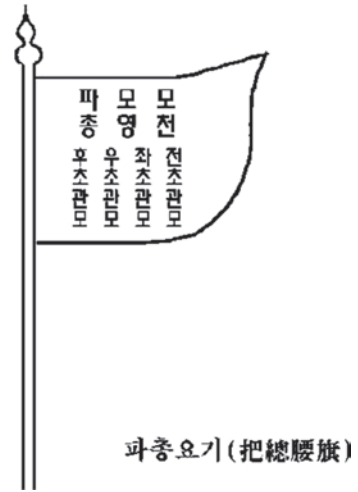
여기서는 부대가 도열하여 지휘 체계를 정할 때의 모습을 말한다. 새끼줄로 측량하여 땅바닥에 표시하고 각 부대가 자리 잡을 곳을 미리 정한 뒤에, 주장이 믿을 만한 사람을 영사로 뽑아 지휘권을 상징하는 인기를 부여한다. 여기서 영사를 서로 다른 위계의 간부를 병칭한 것으로 보아 ‘영·사’로도 이해할 수 있다. 군사 행동이 영, 또는 사 단위에서도

이뤄졌기에 그러한 것으로 본다.

주장의 깃발에는 영사의 이름을 적도록 하고, 영사도 믿을 만한 사람을 휘하의 초장으로 뽑아 초장의 이름을 인기에 적는다. 초장도 믿을 만한 사람을 기총으로 뽑는데, 초장의 기에 이름을 적는다. 초장·기총의 깃발이 없을 때는 다른 표지로 대신한다고 한다. 기총도 휘하 3대의 대장을 뽑도록 했다.

이는 군 편성에서 지휘권자가 하위의 부대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군사 조직의 지휘관은 결국 관료 사회의 무반 조직과 연결되는데, 군 조직에서는 휘하의 지휘관을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여지를 있었던 셈이다. 이조가 인사권을 전적으로 가지는 문반과 달리 무반 사회에서 병조가 인사를 전담하지 않고 나름의 고위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부여했던 근거가 여기서 발견된다.

통솔해야 할 하위 부대장의 이름을 깃발에 적는 전례는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석형이 『병학지남』을 국역하면서 ‘과총요기把總腰旗’를 참고로 내세웠는데(<그림 6>), 과총이 드는 이 깃발에는 휘하 5초의 초장 이름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어떤 실물이 전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초·기에 깃발이 없을 때 마련하는 표지가 어떤 형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부대 소속에 따라 가슴과 배 사이에 일정한 색깔과 크기를 가진 천을 덧댔던 전통 방식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sup>16)</sup>



<그림 6> 과총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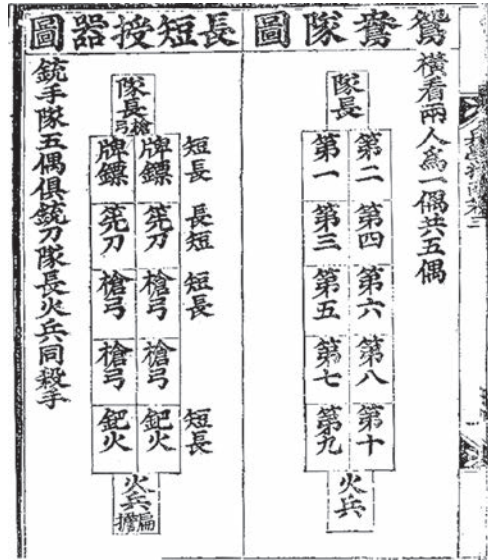
## <G>

又使各隊長 各選本隊下十一兵 準標相去 坐于該隊長後 而定第一三五七九爲右伍 二四六八十爲左伍 後一人爲火兵 再三叮囑 使分明記得 相去步數 與前後左右 自此行住坐立 使無違越 其次申諭之

16) 『문종실록』 권8, 1년 6월 19일(병술)④.

## 번역

또 각 대장은 본대 수하 11명의 병사를 선발하여, 표시한 만큼 거리를 두고 해당 대장 뒤에 자리 잡도록 한다. 1, 3, 5, 7, 9 번을 정하여 우오右伍: 오른쪽 대열로 삼고 2, 4, 6, 8, 10번을 정하여 좌오왼쪽대열로 하며, 뒤에 한 사람을 화병火兵으로 삼는다. 재삼 당부하여 서로의 거리가 몇 걸음씩 떨어져야 하는지, 전후와 좌우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여, 이로부터 행진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서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신신당부하며 깨우친다.



〈그림 7〉 원앙진도

## 해설

이 부분은 C와 관련하여 보면 된다. 비전문 전투원인 농민들을 병사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10명의 전투원은 본래 각자 방패(藤牌)와 칼, 낭선(狼筈: 창날을 부착한 기다란 대나무, 장창(長槍), 당과(鎗鉞: 삼지창 등의 특정한 무기를 들었다.<sup>17)</sup> 그리고 전진하는 방패수 뒤를 낭선수·장창수·당과수 등이 지켜야 했으며, 패수(牌手)를 잃으면 오의 나머지 병사를 참하도록 했다. 이 대형은 모양이,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원앙진’이라고 일컬었다. 임란을 거치면서 수용되었으며, 총을 가진 병사들로 점차 대치되었다. 앞서 홍대용의 저술에서 병사들 모두에게 화약을 분배하는 문제가 나온 것은 전투원이 총수로 바뀐 것을 알려준다.

무기가 바뀌어도 대칭 형태의 전투 대형은 계속 중시되었다. 『병학지남』에서도 보병이 유지해야 하는 대칭형의 대형을 제시하면서, ‘한 시각이라도 종과 횡이 혼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sup>18)</sup> <그림 7>에서 ‘화병’ 아래쪽에 ‘편담(扁擔)’이라고 적었는데, 편담

17) 원앙진은 10명의 전투원을 등패수 2명, 낭선수 2명, 장창수 4명, 당과수 2명인데, 등패수 1명, 낭선수 1명, 장창수 2명, 당과수 1명으로 구성했다.

18)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원앙진.

은 기다란 나무의 양쪽 끝에 짐을 달고 어깨에 메는 도구를 말하는데, ‘단지 짐만 메는 병사’라 하여 편담이라 했다고 한다.<sup>19)</sup> 화병은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무리’이니 곧 취사병이다. 짐을 옮기거나 하는 허드렛일도 맡았을 것이다.<sup>20)</sup>

## 〈H〉

次收結狀 次填名于軍案 然後使知金鼓旗幟令 更使衆書記 具音義讀自己結狀于自己面前 或有犯令者 重杖立法 或梟首巡示 一次餉軍

## 번역

다음에 서약서(結狀)를 거두고, 다음에 군안(軍案)에 이름을 적어 넣는다. 그런 뒤에 징 소리, 북소리와 깃발의 군령을 알도록 한다. 다시 여러 서기(書記)에게 글자의 소리와 뜻을 갖추어 자신의 서약서를 자신의 면전에서 읽도록 한다. 혹 군령을 범하는 자는 엄한 때로 법을 세우고, 혹 목을 베어 돌려가며 보이고, 일차로 병사를 먹인다.

## 해설

여기서 ‘군안’이란 주소와 신상명세 등을 적어 군인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밝히는 명부를 말한다.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과 더불어 병사들을 군령 체계에 묶기 위한 절차들이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는 평범한 농민들도 상황에 따라 병사로서 목숨을 걸고 군령에 복종해야 했다. 삼국지연의에서 보듯이 흔히 ‘군령장’을 쓴다고 표현되는 경우도 많았다. 군령을 익히게 하고, 법을 어겼을 때 목을 벨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회식을 베풀었다는 말이다.

## 〈I〉

教令則大將只傳于各司 各司各傳于率下哨長 哨長各傳于率下旗總 旗總傳于各三隊長 隊長傳于十一兵 然後自臺上 選隊下兵一人 使講教令 若或講令不明 次次根究 不善傳令處行罰

19) 『연병지남』 권2, 영진정구, 遠近兼授.

20) 문경시에서 재현한 ‘속오작대도’ 행렬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보면 화병을 화약병기를 든 병사로, 나머지 병사들은 창검으로 무장한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 번역

대장은 명령을 오직 각각의 사<sub>司</sub>에 전달하도록 하고, 각사는 수하의 초장<sub>哨長</sub>에게 전달하며, 초장은 수하에 거느린 기총에게 전달하고, 기총은 각각 세 명의 대장<sub>隊長</sub>에게 전달하며, 대장은 11명의 병사에게 전하도록 한다. 그런 뒤에 지휘단<sub>[臺上]</sub>에서 아래에 있는 병사 한 사람을 뽑아 명령을 외도록 하는데, 만일 외운 강령이 분명하지 않으면 차근차근 근본 원인을 궁구해보고 명령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곳에 벌을 준다.

## 해설

원래 교령<sub>敎令</sub>이란 임금의 명령이지만, 여기서는 대장의 명령을 말한다. 명령 체계는 명료하고 간단해야 한다. 절강병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유성룡은 ‘1사<sub>司</sub>가 5초<sub>哨</sub>를 통솔하면 호령하는 사람은 5명뿐이고, 1초가 3기<sub>旗</sub>를 통솔하고 1기가 3대<sub>隊</sub>를 통솔하면 명령하는 사람은 단지 3명뿐이고, 1대가 2오<sub>伍</sub>를 통솔하면 명령하는 사람은 단지 2명뿐이고, 오<sub>伍</sub>는 병사 4명만 거느리게 된다.’고 요약하였다. 명령 체계를 분명하게 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J〉

司<sub>哨</sub>則 或左右二司<sub>哨</sub> 或左中右三司<sub>哨</sub> 皆可 此則量兵多少摩鍊 而旗隊則必以三爲定也

## 국역

사<sub>司</sub> · 초<sub>哨</sub>는 좌 · 우 2초로 하든지 혹 좌 · 중 · 우 3초로 할 수 있다. 이는 병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정하면 된다. 그러나 기<sub>旗</sub> · 대<sub>隊</sub>는 반드시 3기, 3대를 단위로 편제한다.

## 해설

‘속오작대도’의 첫머리에 1사 5초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고 한 것처럼, 1사를 몇 초로 구성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1사를 몇 초로 구성할 것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기 · 대는 3을 단위로 하도록 하여 3대를 1기로, 3기를 1초로 구성했는데, 이는 조선

의 속오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sup>21)</sup> 『병학지남』에서는 ‘대를 3대로 제한하는 것은 진법 陣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 또한 3기로 제한하는 것은 병사의 수효에 구애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sup>22)</sup> 진법에 적용한다는 말은 원양진·양의진·삼재진을 적용한다는 말이며, 기를 3으로 구성한 것은 통솔하기에 적절한 병사의 수가 그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전투원, 전투부대의 역할 분담과 적절한 규모의 통솔 단위를 고려한 것이다.

일찍이 정도전은 부대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다. 대열을 움직이지 않고 지켜 내는 것을 수병守兵이라 하고, 적과 먼저 부딪쳐 나가면서 적을 흐트러뜨리는 정병正兵, 접전이 이뤄질 때 옆에서 튀어나가 돌격하는 기병奇兵이 있다고 했다.<sup>23)</sup> 즉, 중군中軍과 전충이 대열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후충後衛후형이 나서서 적병과 부딪쳐 변수를 만들어 내고, 좌·우군 좌·우익이 옆에서 뛰어들어 결정타를 가하는 것을 각각, 수병·정병·기병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대·기의 단위에서도 이뤄졌다. 대 단위에서 운용하는 양의진兩儀陣·삼재진三才陣은 각각의 전투원이 가지는 무기의 길고 짧은 무기로 혹은 버티고, 혹은 구원하고, 혹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진용이었으니,<sup>24)</sup> 이런 역할 분담을 대·기의 단위에서부터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25)</sup>

## 〈K〉

### 行陣法

行陣時 先以鼓聲約行 一聲行一步 勿使輕動失次 當緩鼓徐行 漸次習貫然後 或雷鼓疾行 任意爲之

## 국역

행진법: 행진行陣할 때는 먼저 북소리를 약속하여 행진한다. 북소리 한 번에 한 걸음 전진하

21)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57쪽

22)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營額.

23) 『삼봉집』 권7, 진법, 오행출진가·기병정병논찬. 그의 주장은 세종 대 정리한 진법에도 반영되었다.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24) 장단의 무기란 떨어진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말한다.

25) 『병학지남』 권2, 영진정구, 營額.

되 가벼이 행동하여 순서를 잃지 않도록 한다. 북소리를 천천히 하여 천천히 행진하다가, 점점 익숙해진 뒤에는 간혹 빠른 북소리에는 빨리 행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해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대 이래 행군할 때 북을 사용했다. 『병학지남』에서는 천천히 북소리를 내면 북소리 한번에 스무 걸음을 걷고, 북을 자주 올리면 한 걸음씩 걸으라고 했다.<sup>26)</sup> 『병학지남』의 지침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 〈L〉

行陣次序 則前營前司前哨一旗總下一隊 先起行 二隊繼其尾 三隊又繼 一旗盡後 二旗亦然 前哨盡起後 左哨亦然 旗總在三隊之後 哨長在一哨之中 大將在中營之中

## 국역

행진의 순서는 전영前營·전사前司·전초前哨·제1기총一旗總 휘하의 제1대가 먼저 전진하고, 2대가 그 뒤를 따르고, 3대가 또 그 뒤를 따른다. 1기가 다한 뒤에 2기가 또 그렇게 하고, 전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도 그렇게 한다. 기총은 3대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가운데에 서며, 대장大將은 중영中營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 해설

행진할 때에는 전영의 전사, 전사의 전초, 전초의 제1기, 제1기의 제1대가 먼저 가고 제2대, 제3대가 행군하며, 제2기의 1·2·3대가 뒤따른다. 전초가 다 출발한 뒤에 좌초가 같은 방식으로 따른다고 하였으니 행진 순서는 전·좌·중·우·후초의 순서일 것이다. 이는 C에 표시한 도열 순서와 같다. 마찬가지로 전영이 출발한 후에 좌·중·우 후영이 행군한다. 대장은 앞에 서나 기총은 대열의 뒤에 서고, 초장은 1초의 중간에 서도록 하여 전투 단위마다 지휘관의 위치가 지정되었다.

대장은 중영은 가운데 위치하니 전체 대열은 한중간에 있는 셈이다. 중영은 대장이 있

26) 『병학지남』 권1, 기고정법, 明鼓號; 旗鼓總訣.



는 곳이기에 가장 안전한 중영에 있게 한다는 말이다. 대장이 각군을 지휘할 때 오로지 중군의 지휘를 따른다.

그런데 행군할 때 부대의 행진 순서는 시기에 따라 융통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초기의 진법에는 우·전·중·후·좌의 순서로 행군했고,<sup>27)</sup> 『병학지남』의 ‘분사로행영도分四路行營圖’에서 보듯이 순서가 약간 다르다. 다만, 중군이 부대의 가운데 있고, 대장이 중영에 위치하는 것은 같다.



〈그림 8〉 분사로행영도

〈M〉

入基前聽令 則左右擺列 中營列立于基前 前左右後 各東西相向而立

국역

지휘소 앞에 들어가서 명을 듣는 경우, 좌우로 나누어 도열하고 중영中營은 지휘소 앞에 줄지어 선다. 전영·좌영과 우영·후영은 각각 동·서쪽에서 서로 마주 보고 선다.



〈그림 9〉 각영일체발방도



〈그림 10〉

해설

<그림 10>에서 보듯이 장수들이 지휘소에 들어가서 명을 들을 때의 도열 방식을 말한다.

27)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행진」; 『문종실록』 권8, 1년 6월 19일(병술)④, 「승패지형」.

<그림 9>에 제시한 『병학지남』의 ‘각영일체발방도各營一體發放圖’에 보이는 도상과 일치하는 듯하다.

## 〈N〉

留陣則或方或圓 從便爲之 必以內外層爲之 親兵守攔後 豫選一等勇力者 自爲一軍爲奇兵

### 국역

부대를 한 군데 머물 때는 편의에 따라 혹 방형方形이나 원형圓形으로 진을 치는데, 반드시 안팎의 이중으로 한다. 친병親兵은 만일을 대비하여 가까이에서 지키며,<sup>28)</sup> 미리 가장 용맹한 자를 뽑아 한 개 부대를 만들어 기병奇兵으로 삼는다.

### 해설

이 부분은 부대가 머물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안팎으로 이중의 진을 친다는 것은 장수가 있는 중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중영에는 친위대를 두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습에 대비하고, 가장 용감한 이들을 미리 뽑아 기동력 있게 움직이는 기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세종 때의 진법에는 4군이 중군을 감싸고 방형진을 이루어 8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의 중군은 원형으로 진을 치고 4개의 문을 만든다고 하고 안팎문을 마보병으로 지킨다고 하였다.<sup>29)</sup> 『병학지남』에 보이는 ‘오지합영도五枝合營圖’가 이에 해당하며,<sup>30)</sup> 지휘부를 여러 겹으로 방어하는 방식의 진법은 <그림 12>의 일초방진도에서 보듯이 대단위 부대가 아닌 기·초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sup>31)</sup>

28) ‘난후(攔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급함을 구하기 위하여 대비한다는 뜻으로 꼭 뒤쪽을 지키는 것은 아님. 친병(親兵)이라는 용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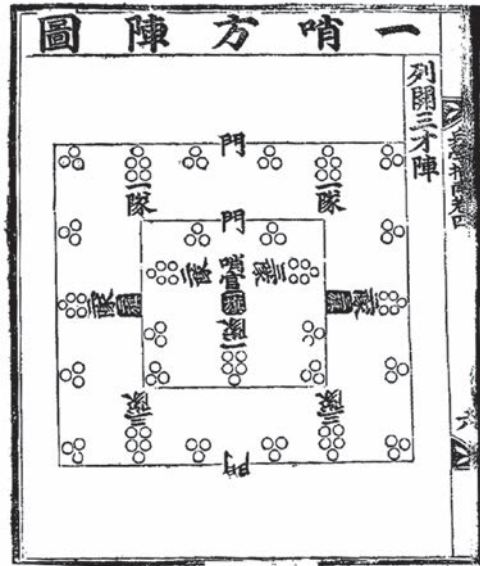
29)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30)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오지합영도.

31) 『병학지남』 권4, 영진총도 하, 일기방진도; 일초방진도.



〈그림 11〉 오지합영도



〈그림 12〉 일초방진도

### 〈0〉

#### 金鼓令

一鼓起 二鼓進 一金止 二金退 金鼓同鳴 則退兵立定 先鼓後金 則進兵立住

#### 국역

‘금고령金鼓令’이란 북과 쇠징을 사용하여 신호하는 지시 사항을 말한다.

북을 한 번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번 치면 행군하고, 쇠를 한 번 치면 중지하고, 두 번 치면 물러난다. 북과 쇠가 동시에 울리면 군사를 물려 대오를 정비하고, 북이 먼저 울리고 징이 뒤에 울리면 진격하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선다.

#### 해설

원래 북은 진격할 때, 징은 군사를 물릴 때 사용하기에 ‘고진금퇴가鼓金進退歌’가 있을 정도였다. 『세종실록』에는 군사 훈련을 할 때 병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한다. 가사는 다음과 같다.

“북 한 번에 벌여 서고, 두 번째에 걸진하며, 세 번째에 전진하고, 네 번째에는 빨리 걷고, 다섯 번엔 급히 달려 바로 급히 싸우나니, 삼군의 전진함이 모두 같은 방법이요, 첫쇠 치면 싸움 늦춰 두 번 칠 때 그치고서, 세 번째에 등을 돌려 네 번째에는 물러서서, 다섯 번엔 급히 달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삼군의 물러남이 모두 같은 방법이라.”<sup>32)</sup>

이처럼 북과 징은 치는 횟수, 속도 등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과 징소리를 조합하여 여러 신호를 만든 예가 있으나 ‘고진금퇴’의 경우 외에는 시기에 따라 일치하지 않았던 듯하다.

## 〈P〉

放砲 萬軍同視大將所 假令大將所 立紅旗而指某方 則前司以旗 相照而應令 靑旗則左營聽候

### 국역

방포放砲하면 모든 병사가 대장이 있는 곳을 주시한다. 가령 대장이 있는 곳에서 붉은색 깃발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면, 전면의 사령이 깃발로 호응하고, 명령에 따른다. 푸른색 깃발을 세우면 좌영左營이 등대聽候한다.

### 해설

대포나 신호용 총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총소리로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특정한 색깔의 깃발을 세우면立 어느 영이든 명령을 살피라는 뜻이다.<sup>33)</sup> 전사가 깃발로 호응하며 명을 받든다. 푸른 깃발을 세우면 좌영이 명령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사·좌영처럼 서로 다른 단위의 부대를 말한 것은 착오인 듯하다. 사가 되었건, 영이 되었건 백·적·황·흑·청색은 각각 우·전·중·후·좌를 가리킨다. 흰 깃발로 신호했다면 우영이 반응했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통상 대장은 영장에게, 영장은 좌충에게, 좌충은 초장에게, 초장은 기충에게, 기충은 대장隊長에게 ... 깃발로 신호하고 응하도록 했지만, 더러는 긴급하게 다수의 병사를 동시에 움직여야 할 경우도 있었다.

32)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33) 『병학지남』 권1, 기고총결.

## 〈Q〉

此皆大綱說 綱之條目 與各項教令 在於臨時磨鍊制定 然由於一號不明 一令不備 而必使全軍狼狽矣 須千萬鍊習 如身之使臂 臂之使指 然後可也 許多節目 許多機關 何可盡錄于一幅紙也

## 국역

이것은 대장의 설명이다. 강령의 조목과 각 조항의 교령은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의 호령이 불명확하고 한 가지 명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반드시 전군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천만 번 연습하여 몸이 팔을 부리듯 하고, 팔이 손가락을 움직이듯 한 뒤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허다한 절목과 허다한 임기응변을 어찌 한 폭의 종이에다 전부 기록할 수 있겠는가.

## 설명

여기서는 강령의 조목 등을 상황에 따라 할 것을 강조했다. 지형이나 전투 상황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명령은 명확해야 하고, 많은 훈련을 거쳐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 〈R〉

兵死於隊 隊死於旗 旗死於哨 哨死於司 司死於將 將死於義 爲莫强之軍 雲岡

## 국역

병사가 대(隊)를 위해 죽고, 대가 기(旗)를 위해 죽고, 기가 초(哨)를 위해 죽고, 초가 사(司)를 위해 죽고, 사가 주장(主將)을 위해 죽고, 주장이 의(義)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 운강(雲岡)

## 해설

병사는 규율로 다져진 조직 속에서 활동한다. 주장의 의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운강’이라고 서명했다.

### Ⅲ. 의병 전쟁의 실제와 「속오작대도」의 비교

#### 1. 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지금까지 이강년의 속오작대도가 대개는 전통의 병학 체계 속에서 구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런 편제 개념이 한말 의병 전쟁의 과정에서 얼마나 쓰였을까?

단발령 후 이강년은 문경에서 봉기했다. 처음에는 산포수 10여 명을 모아 출발했고, 뒤 이어 도태 장터에서 장꾼들을 의병으로 징발하여 무장하기 시작하였으니 ‘포군·민정을 합친 3백여 명’이었다고 한다<sup>34)</sup> 그러나 장꾼들처럼 군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전투력에 보탬이 되지는 못했다. 한때 안동 관찰사를 잡아다 처형하여 기세를 올리는 했지만, 그것은 전투를 통해서 얻은 전과가 아니었다. 식발한 자를 벤다는 소문에 놀라 도망치다가 잡혀 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몰려오는 경병들의 공세에 맞서 빈약한 무기, 훈련되지 않은 의병들을 이끌고 이강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석현산성에서 5백의 ‘탄환도 갖추지 못한 군사들’을 이끌고 농성하다가 의진은 흩어졌다. 이강년은 안동의진으로 나아가 합류하고자 했으나 안동의진은 봉기하자마자 패전하여 대장을 바꾸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 속에 있었다. 관군의 총성 한 방에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안동의진에 기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호좌의진湖左義陣이 농성 중인 제천으로 달려갔다.

당시 유인석柳麟錫, 1942~1915이 이끄는 호좌의진은 무엇보다도 ‘왜군수’들을 과감하게 처단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던지고 있었다. 봉기 초기에 의병에 협조를 거부한 단양·청풍 군수를 베고, 충주로 나아가 충주 관찰사를 베었기 때문이다. 석현산성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충주에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 호좌의진은 충주성을 도로 빼앗기고 근거지인 제천으로 몰려나 있는 상황이었다.

호좌의진은 전·후·좌·후군으로 구성하고, 중군부대가 전투를 지휘하는 구조였다. 이는 전통적인 군 조직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때 전체 병력이 1만에 가까웠다고 하나, 대부분은 충기도 없는 응원 부대였고, 포군의 수는 4백 명 정도에 불과했

34) 이하 이강년에 관한 서술을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다.<sup>35)</sup> 의진에 맞섰던 제천 군수 정영원이 ‘포군 8천’을 운운하는 기록을 남겼으나 과장에 불과하다.<sup>36)</sup> 따라서 덩치 큰 조직에 비하여 전투력이 대단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각 군을 이끄는 지휘관도 거의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선비들에 지나지 않았다.<sup>37)</sup> 유인석이 초기에 몇몇 지방관을 ‘왜군수’로 지목하여 처형한 것은 빈약한 자원으로 의병을 이끌어가기 위한 충격 요법이었다. 그 결과, 호좌의진은 인심을 격동시켰고, 안팎에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10개 남짓한 고을을 수성장(守城將) 체제로 재편성하여 기세를 올렸고,<sup>38)</sup> 통신선을 따라 배치된 일본군 병참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강년이 호좌의진으로 달려간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다.

호좌의진에서 이강년이 맡은 직책은 ‘유격장(遊擊將)’이었다. 원래 유격장은 유군(遊軍)을 이끄는 부대로서, 선발된 조직이다. 세종 때 정리한 진법에 의하면 유군은 전체 병력의 약 20% 정도로 구성하며, 항상 부대의 배후에 있으면서 행군하고, 결진할 때 앞장서고 전투할 때 의병(疑兵)을 세운다거나 보충하는 일, 척후하는 일을 맡았다.<sup>39)</sup> 기동성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부대인 셈이다. 군사 전문가인 이강년이 합류하면서 호좌의진의 전투력이 증가되었던 셈이다. 이강년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병참선의 중간 부분인 조령·수안보 등을 공격하는 구실을 했다.

호좌의진의 유격장인 이강년이 이끌었던 병력의 숫자를 잘 알 수 없다. 당시 부대 규모는 대개 초(哨)를 단위로 일컫는데, 『창의사실기』에는 6초 병력을 거느렸다고 한다. 앞서 보았던 속오작대의 원리에 따르자면 1초는 지휘관까지 112명이다. 전투병만도 90명이다. 그렇다면 전투병 500~6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었던 말인가? 당시 호좌의진이 충주성을 공격할 때 총을 가진 병사들은 400명 정도였다고 하므로 유격군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작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다음의 자료는 참고할 만하다.

\* 조 중사를 보내어 2초 병력으로 이강년을 도와 수안보 적을 토벌하게 했다. 중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2월 4일

35) 이정규, 『종의록』.

36) 정영원, 『피선거초』 1896년 2월 14일.

37) 다만, 선봉장은 포군 출신인 김백선이 맡았다.

38) 구완회, 「제천을미의병기의 경제적 기반과 수성장체제」, 『인문사회과학연구』 2,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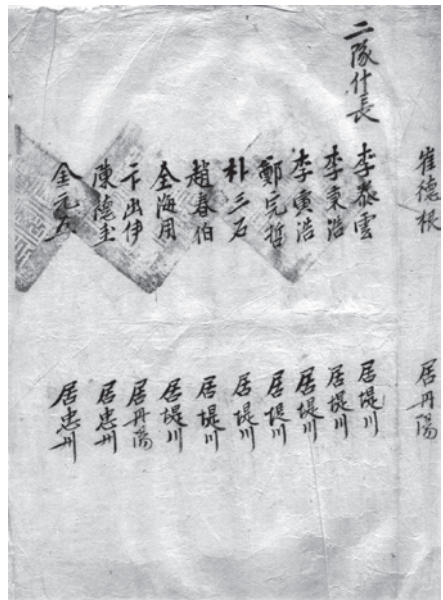
39)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4일(을묘)③.

\* 소모장 이범직이 청주에서 수백 명을 잃고 겨우 10초 병력으로 가흥전에 참전했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2월 4일

기억에 남지도 않을 만큼 비중이 떨어지는 조씨 성을 가진 종사에게 2초를 인솔하게 했다는 기록, 애써 모았던 병력 수백 명을 잃고 남은 병력이 ‘겨우 10초’였다는 표현은 또 무엇인가? 일단 ‘수백 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10초의 병력’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런 점에서 초의 규모가 속오작대도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호좌의진의 대장 종사였고, 의진의 편성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남긴 유일한 인물인 이기진李起振, 1869~1908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이기진은 호좌의진의 초기 편성은 10명을 기초단위로 하여 1초哨로, 100명을 1대隊로 삼아, 십장十將·백장百將이 통솔하게 하였으며, 대를 단위로 나누었으니 5명이 되었다고 했다.<sup>40)</sup> 속오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의병을 일으키는 상황에 포군이 부족했던 상황, 실제보다 의병의 군세를 부풀리고자 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럴듯한 면이 있다. 호좌의진의 전군장 정운경이 남긴 군안에는 40명의 의병 명단이 전하는데, 십장什長은 9명의 포수를 거느렸고, 10명을 하나의 ‘대隊’로 파악했다.<sup>41)</sup> 여기서 ‘대隊’가 ‘초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다음의 기록은 결정적이다. 제천의 호좌의진을 향한 경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의 중군장 京兵 안승우安承禹, 1865~1896는 군심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그림13〉 호좌의진 전군 군안(제2대)

40) 이기진, 「거의시종록」, 『명와집』 상, 60쪽 하-61쪽 상. 제천 을미의병의 부대편성 방법에 대하여는 최재우가 『명와집』을 이용하여 소개한 바 있다(최재우, 「의병 이기진 연구」, 『藥城文化』 9, 1988, 376쪽).

41) 정기용 님이 소장한 정운경 관련 고문서.



대장소에서 각초各哨의 십장什長을 불러 술과 안주를 주면서 대의를 타이르고, 또 다짐을 받아 물러나거나 겁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년 4월 12일

이로써 초哨가 10명을 단위로 했고, 선임자가 십장什長이었던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이기진의 기록에 나오는 십장十將은 십장什長의 착오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유격장이강년이 거느린 6초의 병력은 60명 전후였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달려간 조 종사가 이끌었던 2초의 병력은 20명 전후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 유격군의 상당수는 원주 출신이었다고 한다.<sup>42)</sup>

결국 전기의병기 호좌의진의 유격장 이강년은 10명으로 편성한 몇 개의 초를 이끌었다. 처음 문경에서 봉기할 때는 장날 모여든 장꾼들을 징발한 데서 보듯이 일반 농민들까지 의병으로 끌어들이었지만, 호좌의진의 유격장으로 수안보나 조령 같은 주요 지점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포군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2. 후기의병기 이강년 부대의 편성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 후 봉기한 후기의병기에 전개한 이강년의 의병 활동은 『창의사실기』에 자세하게 남았다.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이라는, 을미의병기 호좌의진의 역사를 정리한 박정수가 편찬을 시작했다. 따라서 병력의 규모를 표현하는 기록의 방식은 대체로 앞의 경우와 일치할 것으로 어렵잡을 수 있다.

봉기 당시에 이강년은 원주진위대의 무기를 손에 넣은 옛 동료 윤기영尹基永, 1856~1907의 군사軍師였다. 잘 알려진 천남 전투에서 그는 휘하 병력을 이끌고 참전했다. 여러 의진에 속한 천 수백 명의 의병이 일본군 1개 소대를 향하여 산발적인 공격을 했고, 결국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는 이강년이 경험한 것과 다른, 신식 군사교육을 받은 병정兵丁들이 다수 참여했다. 해산 군인 출신의 민공호閔靑鎬, 1865~1908의 군대가 대표적이다.

42) 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병신 4월 3일. 유격군에 원주 출신이 많았던 것은 유격진 중군이었던 윤기영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본다. 유격장으로서 두 번째 출격이었던 조령 전투에서 전사한 포군도 원주 출신의 포수 이석길이었다(『창의사실기』 정미 2월 13일).

이강년은 해산 군인 출신의 의병들, 나아가 천남 전투를 함께 치렀던 여러 의진의 지도자들이 함께 투쟁 방법 등을 논의했다.<sup>43)</sup> 그러나 연대 투쟁의 방침 정도는 결의한 듯하나,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결국, 주천으로 물러나 사군<sup>四郡</sup> 지역<sup>44)</sup>에서 봉기한 옛 동료들의 추대를 받아 대장에 오르고 호좌의진의 재건을 천명했다.

등단한 후 이강년은 전통적인 군 편제 방식에 따라 중군·전군·후군·좌군·우군 등을 두었다. 전기의병의 시기와 거의 유사한 부대 편성이다. 전열을 정비한 그는 부대를 이끌고 충주성을 공격했다. 전기의병기에 호좌의진이 수행했던 충주성 공격과 똑같은 방식이다. 심지어는 박달재와 청풍 쪽을 경유하는 두 갈래의 진격로마저 같다. 이처럼 충주성 공격을 중시했던 것은 충주가 가지는 상징성만이 아니라 을미의병 당시 충주성 함락이 안팎에 미친 과장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주성 공격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강년 부대는 제천이 초토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기의병기의 호좌의진처럼 일정한 지역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전투 부대를 특정 장소로 보내어 싸우게 하는 방식은 더 가능하지 않았다. 상대는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일본군이였다. 부족한 병력, 무기를 지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한 지형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치고 빠지는 방식의 게릴라 전술 말고는 없었다.

이후 이강년은 경북 북부, 영서 지역, 사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끊임없는 행군을 통해 일제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러나 행군하고 접전하는 과정에 복을 치고 징을 쳤다는 기록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은밀히 다가가서 치고 빠지는 것이었고, 이는 이듬해 금수산 전투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를 때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문제는 게릴라 전투에서 전통의 속오작대의 원리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이다. 일반의 기대와 달리 그 원리를 의병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었다. 속오작대도에 강조하는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은 의병 전쟁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속오작대도에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중군을 제외한 다른 부대와 작전 지역이 다른 것은 보통이었고, 지휘 통제의 강도도 허술했다. 심지어 동일한 인물이 복수의 의진과 상하 관계를

43) 제천 의림지에 있는 영호정에서 여러 의진의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창의사실기』에는 의림지에서 주연이 배풀어졌고, 여러 의진이 주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주천은 지금 영월 관할이지만, 그때는 원주에 속했다.

44) 사군이라 함은 제천·청풍·단양·永春의 네 고을을 가리키는 관용어이다. 조선 시기에 이 네 고을은 흔히 사군이라고 일컬어졌다.

맺거나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이강년 부대이 후군장인 주광식·신태원 등은 민공호 의진, 이인영 의진과 상하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는 전투 과정에 지휘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는 중군마저도 이강년의 본진과 분리되기도 했다. 실제로 1907년 말에 이강년 부대가 화악산 지역으로 이동할 때 중군장 김상태(金尙台, 1862~1912)는 뒤에 남았고, 결국 합류하지 못할 정도로 의병 전쟁의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다. 다수의 병사들은 총대장 이강년과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중간 지휘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다.<sup>45)</sup>

우선, 부대 편성의 기초 단위가 어떠했는지 보기로 한다.

\* 노고성에 이르러 후군장 신태원에게 6초의 군사를 거느리고 머물러 파수하게 했다. 『창의사실기』 정미 7월 30일, ‘至老牧’조

\* 적이 침범하였는데 ... 각초를 지휘하여 흩어지게 하고 합치게 하면서 다투어 사격하게 하였으니 ... 『창의사실기』 정미 9월 27일

\* 중군장 김상태에게 명하여 군사 2초를 거느리고 백자동에 매복하라 하고, 도선봉 백남규는 군사 2초를 데리고 남천의 동네 어귀를 지키라고 하여 남에서 오는 적을 대비했다. 좌군장 이세영에게는 6초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북의 나루를 파수하여 ... 『창의사실기』 정미 10월 20일

\* 후군이 이미 군사 3초를 거느리고 관청 마을 뒷산의 요충지에 매복하였는데 ... 『창의사실기』 무신 2월 17일

이처럼 이강년은 전투 현장에서 대개는 몇 개의 초를 단위로 병력을 기동시켰다. 이 시기 초의 규모는 전기의병의 시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문제는 이강년 휘하의 도선봉이었던 백남규 부대의 군안을 통해 어렵잡을 수 있다. 1908년 말에 음성에서 압수된

45) 일제의 기록에 나오는 의병 ‘수괴(首魁)’들은 대개가 중간급 지휘관이다. ‘귀순’한 의병들의 자료에 나오는 ‘수괴’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는 총 60명의 이름이 나열되었는데, 중군·군량 담당이 각 1명이고, 종사가 5명, 당번병이 3명이었다. 그 외, 50명을 5개 초로 편성하고, 각초의 십장(什長)이 병사 9명씩을 지휘하도록 하였다.<sup>46)</sup> 즉 핵심 전투원은 10명을 단위로 하는 십장이 이끌고 그것을 하나의 초로 파악했다. 전기의병기의 기본 편성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전투원이 되었을까? 단발령 이후처럼 무장도 제대로 갖추진 못한 농민들까지 의병으로 징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점에서 1908년 말에 일제에 체포된 백남규의 진술서는 참고할 만하다. 그 일부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문: 폭도(暴徒) 의병은 보통 다른 지방에서 모아 오는가? 아니면 그 지역에 토착하는 자인가?

답: 永春·영월 두 곳에서 모집한 것은 계포(契砲)가 많았고, 주로 타향 사람이 많다.

문: 폭도는 어떻게 모집하는가?

답: 미리 어느 마을에 전에 포수하던 자, 혹은 총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미리 탐문하여 만약 있다고 하면 포군을 보내 동·리장을 시켜 데려오게 하고 가입하도록 한다.<sup>47)</sup>

이처럼 의병은 사냥을 직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모집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농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상 ‘농민’으로 표기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총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한편, 후기의병기에 의병에 뛰어난 해산 군인이 비중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일제는 해산 군인을 ‘한병(韓兵)’으로 기록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강년 부대의 싸리재 전투와 관련한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만하다.

46) 『편책』, 「통보」(한헌경을 제1366호; 1908.12.4),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663-666쪽.

47) 『폭도사편책』, 「적도 백남규 문답적요」(한헌경을 1434호; 1908.12.1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2, 605쪽).

강원도 선유사 일행을 호위하기 위해서 춘천에 왔던 지하 육군 소위 이하 20명은 선유사와 함께 ... 원주를 출발하여 원주에서 약 50리 떨어진 옷싸리 재에서 폭도 3백여 명그중 한병은 백명과 맞닥뜨려 전투를 시작하여 ...<sup>48)</sup>

이처럼 포수 경험이 있는 이들과 해산 군인 외에 아마도 도검류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이들이 있었다. 백남규의 군안에 나오는 당번병이나 종사 그룹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투시에 직접적인 전투원으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결국 후기의병기에 이강년 휘하의 전투 병력은 10명을 단위로 하는 초로 구성되었다. 휘하의 중군·전군장·후군장 등의 장수들이 거느리는 병력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중에 해산 군인도 있었겠지만 자료에 따라 그 비중이 차이가 심하다. 『창의사실기』에는 대개 포군으로 기록할 만큼, 포수 경험자가 많았다. 이 점은 농민들을 의병으로 대거 징발했던 전기의병기의 초기 모습과 다른 점이다.

#### IV. 의병 전쟁과 「속오작대도」의 의미

속오작대도는 군사의 편제로부터 시작하여 행군 및 전투 수행 방법, 지휘관의 덕목 등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를 간략히 추린 것이다. 그것은 임란 때 명군으로부터 받아들인 속오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병학지남』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병학의 연장에서 작성되었다. 정규 군대의 편성, 운용 원리였던 셈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무인들에게 상식처럼 여겨졌던 수준이고 새롭게 첨가한 부분은 거의 없다. 무장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자신 무과를 통하여 무장으로 출세하기를 꿈꾸었던 이강년이 이런 자료를 작성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자료를 통해 의병의 편제를 짐작한다거나 전술을 이해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병장 이강년은 체포될 때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쌍안경을 목에 걸고 있을 만

48) 『폭도사편찬』, 「춘비수 제242호(1907.10.26.)」(『한국독립운동사(자료)』 8, 67-68쪽).

큼,<sup>49)</sup> 전통적 병법이 상정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싸웠다. 자료 속에는 그가 의병을 일으켰던 상황을 시사하는 어떤 표현도 들어 있지 않다. 예컨대 그가 1907년에 그가 의병을 다시 일으킨 후 지었던 「국수원류(國擘源流)나 격문들, 장수의 마음가짐을 정리한 「군계(軍戒)」 등에 나타나는 시대 상황에 관계되는 표현들이 속오작대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sup>50)</sup> 물론 그가 의병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에 작성한 자료도 아니다. 의병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규 군대의 편성 원리에 따랐으나, 투쟁 현장의 현실은 비정규 군대, 게릴라 부대처럼 운영되었다.

속오작대도는 적어도 1사 정도의 대부대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며, 그 규모는 561명이다. 그러나 의병장 이강년은 제대로 무장한 그 정도의 병력을 지휘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단발령 후 봉기했을 때 300~500의 군사를 모았으나, 다수는 제대로 무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호좌의진 유격장 시절에는 수십 명 규모의 소수 병력을 이끌었다. 후기 의병기에 호좌의진을 재건하고 대장이 되었지만, 유격전 시절에 전투 현장에서 그가 직접 거느렸던 병력은 수백 명을 넘기 어려웠다. 『창의사실기』에는 永春 전투 때 본진·별진·좌군·우군을 합하여 3백 명을 거느렸던 것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sup>51)</sup>

대부분의 경우, 전투 현장에서 이강년은 수십 명으로 이뤄진 소수 병력을 움직였다. 휘하의 간부들은 많은 경우, 별개의 장소에서 임기응변하면서 싸웠다. 따라서 병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지휘자는 직접적인 지휘를 하는 중간 간부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강년 부대의 휘하에 있는 의병의 수는 수백 명이었겠지만, ‘귀순’한 의병들의 ‘괴수’로 나타나는 이들이 대개 중간 간부들이었던 것은 그런 까닭이다.

49) 『폭도사편찬』, 「폭도토벌과 수괴 생금의 건」(제경발 제255호; 1908.7.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371쪽).

50) 참고로 「군계」 열 두 구절은 다음과 같다. ‘준엄하고 정직한 것은 장수가 지켜야 할 체통이요, 한번 정하고 바꾸지 않는 것은 장수가 지켜야 할 법도다. 간략하면서도 무게 있고, 관대해야 할 것은 장수가 가져야 할 말투이며, 만 번 흔들어도 꿈쩍 않는 것은 장수가 지녀야 할 능력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장수가 힘써야 할 바이며,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은 장수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홀로 우뚝하여 누구도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의리의 본령이요, 위세에도 굽히지 않음은 기개와 절조를 크게 쓰는 것이다. 위엄을 베풀고 예의를 앞세워 가면서 잘 살피고, 열심히 계획을 세워 이루고, 일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상은 무겁게, 벌은 가볍게 하되, 괴로움을 달콤한 것보다 먼저 하여 마음을 열고 정성을 보인다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는 것’을 강조한 것은 유생 의병장의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운강유고』 권1, 「군계」.

51) 『창의사실기』 정미 10월 무인.

속오작대도에서 대장은 오직 사司를 지휘하고, 각사가 초장에게, 초장은 기총에게, 기총은 대장에게 명령을 전할 뿐이라고 했지만, 전투 현장에서 이강년은 대개 10명으로 이뤄진 초를 몇 개씩 움직이면서 지휘했다. 북소리에 맞춰 행군하게 한다거나, 부대가 머물 때 반드시 두 겹으로 진陣을 친다거나 하는 것은 무장도 빈약한 소수의 병력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하는 의병 전쟁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속오작대도가 의병대장 이강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병의 최소 전투 단위의 규모는 거의 같다. 명칭은 달라서 의병부대에서는 1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哨였고, 속오작대도에서는 대隊였던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속오작대도의 대隊는 반드시 취사병[화병] 1명을 포함하는데, 의병부대에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었던 듯하다. 1908년 봄, 단양 쪽을 근거로 활동하던 한 의병부대에 관한 일제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밀정의 보고에 따르면 예천 서남방 약 50리인 적성 부근에는 2~3일 전부터 폭도 70~80명총을 가진 자는 약 40명이 충북 단양 방면에서 침입하여 양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sup>52)</sup>

이 자료는 이강년 부대에 직접 관련된 자료는 아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의병 중 총을 지닌 사람이 절반 남짓이라 하니, 나머지는 도검류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를 가졌거나 무기가 없었다. 무기가 없었던 이들은 어떤 구실을 했을까? 신돌석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귀순’한 남성천의 진술에는 다음의 부분이 있다.

내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도망할 것만 생각하니 낮에는 나를 방안에 가두고 야간행군을 할 때는 ‘그릇을 담은 자루鉢囊’를 짊어지도록 했다.<sup>53)</sup>

행군할 때 그릇을 운반했다는 것은 짐꾼 노릇을 했다는 말이다. 이들은 전투할 때에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했고, 허드렛 일을 도맡는 존재였다. 아마도 의병 활동을 하다가 ‘귀순’

52) 『폭도사편찬』 「통보」(보병제12여단사령부 수 발 제89호; 1908.3.28)(『한국독립운동사(자료)』 10, 65쪽).

53) 『폭도사편찬』 「귀순자의 건 보고」(영비발 제35호; 1908.6.23.)(『한국독립운동사(자료)』 11, 249쪽).

했다는 이들의 상당수는 이렇듯 짐꾼으로 단순히 동원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속오작대도에 나오듯이 취사와 짐꾼 구실을 하는 화병과 비슷한 구실을 했던 셈이다.

다음으로, 속오작대도에서 말하는 여러 기본적인 규율, 지도 노선 등은 의병 전쟁의 현장에서도 쓸모가 있었을 것이다. 이강년도 군사에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해 보았자 포수로서 총기를 다루는 일이 고작인 병력을 거느렸다. 물론 일제의 기록에 한병 韓兵으로 표기되고 의병 자료에 병정 兵丁으로 표기되는, 해산 군인 출신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다수는 ‘포군 砲軍’이었다. 이들을 군인으로 단련시키는 일이 이강년에게는 가장 중요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율을 가르치고, 규율을 강제하는 일이다. 속오작대도에 나타나는 도열 규칙, 의병들에게 각각 자신이 고수해야 할 위치를 지정해 주는 일, 일정한 신호에 따라 규율 있게 ‘좌작진퇴 坐作進退’하도록 하는 것은 평범한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마치 제식훈련이 군인을 만드는 첫걸음인 것처럼. 의병에 가담한 후, 군안에 이름을 적고 맹세하는 의식도 군령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를 통해 군령을 세울 수 있었다. 군령 위반자는 심한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에게 목숨 바쳐 싸워야 할 대의를 확인시키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속오작대도 끄트머리에 적은 ‘병사가 대隊를 위해 죽고, 대가 기旗를 위해 죽고, 기가 초哨를 위해 죽고, 초가 사司를 위해 죽고, 사가 주장 主將를 위해 죽고, 주장이 의義를 위해 죽는다면 막강한 군대가 될 것이다.’라는 선언은 군 지휘관이면 마음에 새겨야 할 철칙이었다.

결국 이강년은 속오작대도에 나타나는 군사 전문가인 이강년의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통의 병법의 충실한 연장선에 있는 이 자료는 한말 의병 전쟁의 상황과 잘 맞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군사 운용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장수가 지녀야 할 덕목을 체득한 인물이었다. 그런 면이 있었기에 이강년은 일제가 두려워했던 의병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대의 군기를 유지하여 신망을 얻은 의병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군사 경험이 없는 유생 출신의 여러 의병장,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농민층의 원망을 받기까지 했던 일부의 의병장들과 다른, 뛰어난 의병장이었던 셈이다.



## 색 인

### ㄱ

- 각영일체발방도 481, 482  
 갈평전투 228, 232, 233, 244  
 강감찬 460  
 강병수 196, 200, 201  
 강수원 6, 9, 14, 143, 144, 146  
 강영직 224  
 고진금퇴가 483  
 고치령 237, 338, 347, 350, 383, 384  
 괄이섭 9, 14  
 관동창의록 228  
 국수원류 494  
 菊池主殿 255, 256, 257, 259, 263, 265, 273, 274, 275, 278, 279, 280, 282, 283, 292, 298, 299, 301, 302, 303, 307, 308, 312, 313, 314, 319, 361  
 군대해산 231, 368, 371, 481  
 권병하 155  
 권율 452  
 권태준 211, 212, 372  
 금수산 27, 29, 153, 155, 242, 490  
 기효신서 469, 470  
 김구 376, 460  
 김구현 376  
 김귀현 379  
 김규림 399  
 김규식 388, 399  
 김규향 9, 14, 71, 72, 450  
 김대중 66, 67  
 김대현 196, 200, 201  
 김두진 224  
 김룡사 231, 233, 234, 275, 278, 280, 282, 283, 292, 295, 298  
 김마리아 460  
 김병우 9, 14, 220, 221, 222, 224, 225, 226  
 김상태 9, 14, 86, 89, 193, 195, 199, 202, 205, 491  
 김생산 343  
 김성달 235, 289  
 김소산 67  
 김수동 9, 14, 177, 178, 182, 185, 187, 189, 191  
 김수민 388, 399  
 김용백 34, 45, 48  
 김용출 235, 289  
 김용현 24  
 김운석 196, 200, 201  
 김유신 460  
 김재성 212  
 김재희 236  
 김정호 460  
 김좌경 213  
 김좌진 460  
 김중환 319  
 김춘삼 9, 14, 134, 135, 138, 140, 141  
 김춘추 460  
 김풍기 149  
 김흥기 6, 9, 14, 148, 149, 151  
 김홍도 460

### ㄴ

- 남도경 9, 14, 159, 161, 162, 163, 164  
 남만귀 9, 14, 94, 95, 97  
 남부수비관구 319, 323, 325, 330, 336, 344, 347, 349, 350, 353, 355, 357, 359, 362  
 남성천 495  
 盧炳大 446  
 노봉돌 17

**ㄷ**

담헌서 470  
당교 274, 502, 505  
대승사 233, 234, 235, 257, 271,  
274, 275, 280, 282, 283,  
289, 292, 293, 295  
도선봉 237, 328, 491  
도창의대장 231  
도체찰사 470

**ㄹ**

류순영 212, 213  
류장균 349  
류준영 212, 213

**ㅁ**

명봉사 233  
문경 分派所 248  
문경우편국 231  
문경헌병분견소 45, 103  
문익점 460  
만궁호 388, 399, 400, 403, 454,  
489, 491  
민영필 399  
민영호 343  
민영환 460

**ㅂ**

박기병 162  
박기섭 388, 399

박득용 9, 14, 167, 168, 171,  
173, 174

박백현 9, 14, 99, 100, 103, 105,  
106

박세진 34, 37, 45, 48

박시영 34, 37, 45, 48

박장호 241

박정빈 407, 408

박처사 295, 349

백남규 17, 376, 379, 448, 491,  
492, 493

백락현 448

벽산선생창의전말 228

변학기 239, 241, 242, 244, 341,  
344, 343, 350, 351, 353,  
355

병학지남 466, 467, 468, 470,  
471, 473, 475, 476,  
479, 480, 481, 482,  
484, 493

보병제14연대 228, 229, 230,  
231, 244, 255,  
257, 325, 353

봉낭사 397

분사로행영도 480, 481

**ㅅ**

사명당 460

사불산 234

삼재진 479

세종대왕 460

소의신편 228

속오작대도 462,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7,  
478, 486, 488, 490, 493,  
494, 495, 496, 503, 505

손병희 460

송병전 376, 379

시위대 127

신각용 325

신돌석 237, 325, 343, 244, 349,  
353, 382, 383, 386, 495

신사임당 460

신태원 233, 235, 491

심상희 380

13도연합의진 12

**ㅇ**

안교봉 9, 14, 209, 211, 212,  
213, 215

안동진위대 236, 377, 378

안승우 488

안중근 460

안창호 460

양익진 479

연기우 112

연합작전 237, 244

염석룡 212, 213

오지합영도 482

왕건 460

왕산허위선생거의사실대략 228

운강선생창의일록 228, 229, 233,  
235, 236, 238, 239, 241,  
242, 243

원주진위대 236, 489

원철상 397

원효대사 460  
 유관순 460  
 유인석 402, 403, 407, 408, 486, 487  
 윤관 460  
 윤기영 381, 489  
 윤대용 161, 162  
 윤병돈 221, 222  
 윤봉길 460  
 을미의병 487, 488, 489, 490  
 을지문덕 460  
 依田廣太郎 246, 247, 250, 254, 255, 258, 259, 263, 265, 269, 271, 273, 284, 298, 312, 313, 319  
 이극연 222  
 이근홍 196, 201  
 이기진 488, 489  
 이덕삼 127  
 이덕원 196, 200, 201  
 이만원 9, 14, 75, 76, 78, 235  
 이명상 233, 235, 383, 394, 395, 399, 448, 449  
 이상재 460  
 이성서 213  
 이세영 491  
 이순신 460  
 이순하 383  
 이승재 434, 438  
 이영승 399  
 이영채 112  
 이용업 9, 14, 117, 118, 121, 123, 124  
 이용운 9, 14, 16, 17, 19  
 이용태 212, 213  
 李潤淳 238  
 이율곡 460  
 이은찬 112, 456  
 이인영 9, 14, 33, 37, 41, 44, 48, 95, 110, 111, 112, 114, 239, 355, 373, 388, 399, 407, 408, 452, 456, 491  
 이종국 212, 213  
 이준수 112  
 이충봉 397, 448  
 이증연 222  
 이진하 241, 399  
 이참봉 349  
 이치명 399  
 이태영 112  
 이퇴계 460  
 이해수 448  
 이효경 9, 14, 153, 154, 155, 157  
 일대전신향후도 472, 473  
 임달실 67  
 임동이 67  
 임영수 6, 9, 14, 65, 66, 67, 68  
 임진왜란 469  
**ㅈ**  
 자진회 224  
 장인식 9, 14, 84, 85, 88, 91, 92  
 장창식 86, 89  
 적성사 233, 258  
 적성전투 228, 235, 244  
 적원일기 228  
 전봉준 460  
 전신회립도 472  
 전해산진중일지 228  
 전화통신소 249, 316  
 절강병법 469, 473, 478  
 정갑이 179, 182, 183  
 정도전 471, 479  
 정몽주 460  
 정병화 381, 404  
 鄭濱 236  
 정약용 460  
 정운경 488  
 정인수 179, 182  
 정준길 196, 201  
 정중군 343, 349  
 정중택 9, 14, 126, 127, 129, 131, 132  
 정토일록 228  
 정하직 349  
 정해창 168, 171, 241  
 정환문 349  
 정흥대 9, 14, 32, 33, 36, 40, 44, 47, 50, 52, 54, 56, 58, 284  
 조도교 355  
 조동교 239  
 조동규 135, 138  
 趙炳淳 235  
 조선폭도토벌지 229  
 조성문 335  
 조성윤 24  
 趙用根 446  
 증의록 228, 487  
 좌작진퇴 496  
 주광식 491

지병언 149, 150  
진남관 234, 258, 265, 269, 273,  
274, 282, 292, 308, 312

## 大

---

창의사실기 229, 233, 466, 487,  
489, 490, 491, 493, 494  
채경묵 6, 9, 14, 80, 81, 83  
채정문 150  
채정청 24  
척계광 469  
청량사 296  
최근형 213  
최무선 460  
최성천 179, 182, 195, 196, 197,  
200, 201  
최순창 185  
최육영 9, 14, 209, 211, 212,  
213, 215  
최익현 460  
최진영 222

## 표

---

파총요기 474, 475  
平理院 415  
폭도사편집자료 229  
폭도에 관한 편책 229, 242, 243

## ㅎ

---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 228, 487,  
488, 489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304

한국주차군사령관 230, 304  
한국주차군수비대 244  
한명만 196, 200, 201  
恒吉忠道 359

허위 112, 228, 388, 399, 402,  
407, 408, 417, 418, 422,  
430, 431, 433, 435, 436,  
444, 445, 454, 460  
허준 9, 14, 20, 21, 22, 460  
허준여 9, 14, 20, 21, 22  
호좌 창의 대장 28  
홍대용 470, 476  
홍우석 42, 380  
홍중선 9, 14, 61, 62, 63, 73  
황경문 9, 14, 23, 24, 26  
황해철 22